



진리
평화
창조

외대학보

편집장	이강희
주필	이영환
협업	이영환
편집	이영환
인쇄	이영환
발행	이영환

창간 1955년 4월11일 [주간]
등록번호 제2153호

THE OE DAE HAGBO

제587호 1992년 9월 22일 (화)
제3종 우편물(가)급인가

1

용인 총학생회장 7일 사퇴서 제출

“일신상의 문제 · 가정문제로 직위 수행 어려워 결심”

총학, 왕산체전후 확대운위 통해 권한대행체제 논의

지난 7일(월) 용인캠퍼스 중앙운영위원회(중앙운위)에서 총학생회장 신진수(사학·체육4) 군이 사퇴의사를 표명하고 8일(화) 아침 학교를 떠났다.

중앙운위에서 신군은 “일신상의 문제와 가정문제 등으로 인해 직위를 계속 수행해나가기 어렵겠다”는 개인적인 결심을 밝히고 이에 대해 중앙운영위원들은 “현시기 엄중한 정세속에서 임기를 한달여 남겨두고 사퇴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질 않는다”는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문제가 있다면 같이 풀어보자”고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밤 새 진행된 논의 속에서 총학생회장이 결론한 “임기를 이해해 주길 바란다” “결심은 이미 굳은 상태”로 사퇴를 받아들인다고 고백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중앙운영위원들은 이를 접수했고 신군은 8일(화)

아침 학교를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부총학생회장 김병철(사학·무예4) 군은 “총학생회장의 고인은 8월초부터 진행해 왔으며 개강을 앞두고 ‘사퇴하고 싶다’는 얘기를 한적도 있지만 계속 만류해 왔다”고 설명하고 “본인의 결심이 굳은 상태에서 선택할 수가 없는 상태”였다고 밝혔다. 실제로 신군은 방학중에 진행되었던 통일캠프에 부분적으로 참여하고 개강을 앞두고 있는 간부수련회 기간에는 충주 집에 가 있어 참석하지 못했다.

용인캠퍼스 총학생회는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 지난 17일(목) 비상확대운위를 열고 그간의 경과를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총학생회는 “7일 중앙운위 이후 몇차례 총학생회장과 교과의 연락과정을 통해 회장이 사퇴결심에 대한 반박의 의견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이 문제는

서울시대학생회장 폭로로 학자새국면



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양과 권주임 모두가 공청회에 참석할 수 없어 이번 사건은 더욱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어렵게 됐다.

한편 8일에 있던 보교대에서는 사양이대 학생회장 이철준(영여4) 군이 폭로한 모산배의 ‘학생회와 학생’에 도문을 달라는 내용의 접촉부분이 또다른 학대의 조미의 관상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 사건은 특히 이군이 직접 일반학생들에게 밝히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이에 따라 내용을 공개화하겠다는 점에 있어 이주 이준배에 대한 신상명세의 더욱 구체적인 내용을 폭로할 경우 학내에 또다른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학내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은 결국 본교의 중, 장기발전의 수립 부분과 관련한 학생들의 자각을 이끄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이고 있다. 학생회에서는 이러한 사건들이 대학당국 혹은 재단의 태도에 있어서 서로가 대립하여 대화의 소지를 줄이기 보다는 더욱 냉정하게 학교발전안을 가지고 논의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대학당국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화’로써 해결하자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대학당국의 공식적인 입장이 없는 가운데 학내 정세에 파고드는 본교의 발전안 마련에 대한 요구가 부유하기에는 미약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특히 18일(금)자 본교 발전안 수립의 주무 부서인 기획조정처에서 밝힌 ‘중장기발전안’에 대한 학교의 입장(12년

(대학부)

지난 9월 7일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편지봉투를 받고 있는 조양(사학·불여4) 양의 지필서 공개로 부터 시작된 학내 긴장이 계속해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가 이전에 조양이 지필서로 밝힌 내용과 전혀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어 이 사건을 접한 이들로 부터 ‘의혹’을 품 수 있도록 공청회를 하자는 의견도 상당 부분 제기되고

학생측, 추할 이전 공청회 열어 중장기 발전안에 대해 학교측에 질의 예정

이번 지필서 공개에 따라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다음날인 8일(화)에 대한 ‘비상보도대회’를 갖고 학생들에게 공식적으로 이 사건을 발표했다. 당초 총학생회측은 이에 대한 ‘공청회’형식을 통해 대학당국으로부터 명확한 해명을 요구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사건이 학내에서 크게 제기되고 있는 ‘보교 중, 장기발전안’의 수립에 있어 자칫 방향을 오도시킬 염려가 있다는 판단속에 보고형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지난 15일자로 발표된 당사자 권위성(학생부) 씨의 ‘해명

이 있었으나 이를 변경하여 재단의 수시사정제를 목표로 캠퍼스 건설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이의 실행여부가 50대생으로서 장려된 바 있다’는 발언도 주목할 만 하다. 87년 당시 재단과 대학당국에서 이러한 목표로서의 사업을 추진한 바 있지만 이를 공개하고 학내 교수, 학생, 직원, 동문들과 함께 근본적인 학내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지극히 온건하다는 것이 현재의 흐름인 것이다.

<이영환 본보편집장>



정국에 엄청난 충격을 가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인 김영삼의 당적을 포기하고 공정한 선거권을 위해 중립적선거관리관직을 구상하겠다는 결단을 밝히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언론과 국민들도 ‘이들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고심중이다.

▲예전 그대로를 본다면 훌륭한 결행이다. 노대통령의 탈당을 현정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기억될 것이며 여당과 행정부간의 관계설정을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다. 더구나 민주당 명예총재의 사퇴 취지로 유해할 것을 대통령직에서 철거한 중립을 지키기를 제헌헌법에 누른들 박수를 보내지 않나.

그러나 오늘날 국민들이 순진하게 예전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긴가민가 감미로 못맛는 모습을, 패행적으로 굴러왔던 정치행태가 가져다 준 선물이기도 하다. 그 근거를 찾는데

탁월한 선택 그 후

▲정국이 돌리고 있다. 며칠전 민주당 총재 김영삼이 기자회견에서 연거분 관련된 사실을 인정하고 대대적인 개각을 내세우고 나선데 이어 지난 18일(금) 노대통령이 민주당 탈당을 선언하여

는 멀리 돌리기를 필요조차 없다. 대선을 겨냥한 김영삼 이미지 구축에 제물이 된 이종동선 사업자 선정 문제가 그나마 관련선거를 폭로한 양심선에 대한 축출은 수사발표가 거듭될수록 안개다. 주고, 범죄국가의 원칙을 뿌리째 흔들어대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연기가 이를 증명한다.

▲국민은 공명선거를 원한다. 대통령과 민주당의 김중재도 그러하다고 밝혔다. 이제야 국민과 정권의 목소리가 하나로 합쳐지는가. 말과 행동이 서로 모순되는 경우를 상기는 것은 정략 기우인가.

<이종미>

당신이 채워야 할 자리입니다

이영훈
박현수
황효선
이창미
황재성
김삼중

누군가
신선한 사람에
그림다

이승훈
정지훈
임승운
이한재
정공연
김영하

편집회의: 아침 11시
기사마감: 20일
늦은 사람: 편집장
기사마감 시간 넘긴 사람: 이창미-이영훈
김삼중-일주일
기자들아!
빨리 쓰고 마시러가자

외대학보 제48기 수습기자 지원자 후기모임

외대학보 제48기

수습기자 추첨 결과

△대상: 92학번
△모집부문: 일반·사진·만화기자
△전형방법: 첫 날-자기소개서 쓰기 및 토론
둘째날-면접
△전형일자: 9월30일(수)과 10월1일(목)
△원서배부 및 접수: 이문·왕산 학생회관 2층
외대학보 학생기자실
△원서마감: 9월30일(수) 늦은5시 30분



경적을 울리며 신바람나게 운전하는 그날은...

"가진 자는 모든 상과 기복이 인연에서 비롯된다고 믿는 사람인가?" 친안 독립운동가 김원봉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하여 1923년 8월 23일 23일째 찾아 농성을 하고 있다.

독립운동은 차량보유 35대에 67명의 노동자, 그 중 49명이 노조로 가입하고 있는 중소규모의 운수회사이다.

노조원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하루 일의 재료를 해줄 것과 91년 단체협상에서 합의했던 20일 만공제를 지키라는 것을 포함해 다른 운수회사에서는 담담하게 행해지고 있는 사항들이다. 자영업자 부분은 자동차운수 규약에 매일 일상의 재료를 운수업자에게 해야 한다고 규정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노동자들이 하루 4원권을 부담해서 재료를 해왔다. (20일 만공제만 20일 만

14일 생의발생신고를 내자 노동위원회 통해 알선안이 도출되었다. 노동자들의 요구가 거의 수용된 알선안은 노사가 동의해서 타결될 기회가 보였으나 3일후인 8월 23일 회사가 알선안으로 협상안을 파기해 버리고 단독으로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를 노동회가 인정함에 따라 본래는 8월 28일 전면파업을 단행했던 것이었다. 그러나 회사는 곧 적정하게 신공세를 시정해 접수시켜 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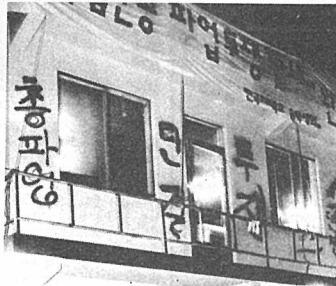
"수정안에는 새벽2~3시에 차를 입고 시킨 후 재료가 열거되었다가 주차시키고 끼기하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비슷한 사건에 35대를 세차하러면 시간이 한두시간씩 걸렸는데, 그것은 자라리 우리돈으로 세차를 하라는 말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걸린만큼 합당한 이유를 대어야 20일 만

다. '임금도 받지 못하니 살림은 더 어려워지고 힘이 많이 들지만 이런 형상은 적당히 타협할 수 있다는 걸 알기에라도 함께 도와주세요' 임시 주방장을 맡고있는 김시영씨의 부인 한영순씨의 말이다.

5명 남짓한 휴게실과 작은 세면장 등의 열악한 복지시설과 대조적으로 바로 옆 건물에는 상류층이 장악하고 있는 가정집이 있다. 후생복지 건물을 볼만대로 개조해 사용하는 사장님의 집이다. 그 곳에서 독립운동가 상무인 그의 부인과 전무인 8살의 노모 계장인 그의 아들, 세박부인 딸이 함께 지내고 있다. 그러나 따뜻한 집안에서 자는 그들이 시멘트 바닥에서 자는 노동자들 보다 행복할지는 만무하다. 집 밖에서 울려 퍼지는 노동자들의 힘찬 풍을 소리와 구호가 부끄러워하지는 누구보다 그들 자

친안 독립운동가
파업현장을
다녀와서

전국 택시노련
서울시 지부
노조원 매수사건



독립운동가 노조원들이 합한 풍을소리에 그들의 주장을 담고 있다.

회사측, 개인택시 담보로 노조원들 발목잡아 사측의 일방적 협상파기에 삭발투쟁으로 맞서

무를 하면 월급보급을 전제 조건으로 하는 것이다. 독립운동가는 다른 회사와는 달리 23일 단체협약이 성립되어 왔고 월급보급은 타회사에 비해 9~10만 원이 훨씬 적었다. 그리고 금요일은 월 23일(만공제)로 독립운동가는 37만 원 정도이다. 이렇게 임금에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데도 노동자들은 회사측을 향해 울기 시작했다. "운전수들의 공통된 점이 개인택시가 아니고 운전하는 것입니다. 개인택시를 갖기 전에는 하루에 4만 5천원씩 사납금을 회사에 냈더니 이번엔 모자라곤 합니다. 봉급이 다 해 봐야 이런 저런 수당 다 합쳐도 30만 원이 조금 넘는다. 새벽 4시부터 오후 4시까지 기준으로 하루 2교대, 10~12시간을 근무해야 하니 죽을 지경이죠." 부조합장 유길상씨의 설명이다. 이쯤에 간절한 개인택시대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직장에서 장기근속과 부고 운전권을 해야 한다. 보통 7년 동안 한 회사에서 근무해야 개인택시 자격 승인이 주어진다. 유길상씨는 이 때문에 운수회사들은 일단 들어와 일장정도를 근무해 보면 아무리 약조이라도 다른 회사로 옮기기를 원한다.

독립운동가 노조의 이토록 기본적인 요구가 시간의 질과 농성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는 철저한 회사측의 일방적 살피주는 총알지배 노조위원회의 태도도 있다. 지난 7월 3일 부지직단 단 재협상이 실패해 사측이 8월

금제를 인정해 주었다는데, 그 한방한 이유관계 이르면 총합한 전진사태를 때 봐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된다는 말이 아니다. 노동회에서는 돈있는 사람 편만 드는 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노조가 협상안을 일방적으로 파기해도 인정할까요? 본논은 전 노조원들의 말이다. 본논은 곧 투쟁으로 이어졌다. 노조원들은 전 원 사발식을 강행하고 추위에 도 고향에 내려가지 못한 채 야농성을 계속했다. 노조원들은 모두 모여 합동투쟁을 벌이며 협상이 잘 매달리지 않도록 기원했다. 노조원들의 투쟁의 열기가 달아올랐을수록 외부의 열기도 거세어졌다. 사장과 결탁한 경찰은 노조위원장과 조원 2명을 연방밀봉 등의 이유로 구수했다.

여전히 협상에 일방적 태도를 보이지 않는 이화복 사장은 "시내 단 지나 돈 벌어진 건 누가 기나 두드르다. 너희들은 개인택시 열영 없을 줄 알아."라며 협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투쟁이 험난하고 의도적이지 않다. 그간 20여명의 투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최연인민들과 운수회사 동료들의 적극적인 지지 때문이었다. 세번의 거리모과 각종 단체와 이웃들의 지원과 함께 한 약 7백여명 기량이 된다. 이 돈으로 선전전도 하고 수시로 해방하면서 장기투쟁을 힘을 붙여 넣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집과 회사를 오가며 보살피는 노동자의 아내들이

신이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파업이 장기화 되면서 자금난이 악화되고 언론에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 홍보가 부족하다는 어려움이 있지만 독립운동가 노조원들은 승리하리라 확신하고 있다.

회사 앞마당에는 단극대 학생들이 가져온 플래카드가 휘날리고 있다.

독립운동가 노조 승리 만세 (김지혜 기자)



재학생과정 모집요항

1. 모집학과 및 인원

학 과	과 정	인 원
영 어	초 급	각 25명
	중 급	

2. 교육기간: 1992. 10. 12(월)-12. 18(금) (10주)
3. 교육시간: 주 4일(월, 화, 목, 금요일), 1일 2시간(19:30-21:20)
4. 지원자격: 본교 학부 재학생으로서 지방학과 외국어 비전공자
5. 선발방법: 등록순 마감
6. 수강료: 120,000원 일시납
7. 등록기간 및 장소: 1992. 9. 30(수)부터 교과과
8. 기타

- 1) 강의시간표 및 교과는 개강 1주일전 교과과 게시판에 공고함.
- 2) 수강인원이 미달될 경우 개설되지 않을수도 있음.

*문의전화: 외국어연수원 교과과, 961-4174, 4175

1992년 9월

외 국 어 연 수 원

공 고

제목: 92년도 예비군 기본교육 실시

92년도 대학 적정예비군 기본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니 빠짐없이 참석하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교육일정
 - 1차: 1992. 10. 1(목)~10. 2(금)
인문대학, 동양대학, 자연과학대학, 동구이 전학과
 - 2차: 1992. 10. 5(월)~10. 6(화)
서양대학(동구이학과 제외), 사회과학대학
2. 교육코스: 본병제 55사단 172연대 1대대 교장(용인읍 운하리 소재)
3. 교육 대상
 - 가) 92년도 전역한 예비군
 - 나) 지역에서 16시간 이상 교육이수자(비상계획원칙에서 확인요)
 - 다) 미발 보충역(소집면제자)
4. 교통편: 서울지역 거주자-양재동에서 07:30분 출발
성남, 모현 거주자-모현학사에서 08:10분 출발
수원, 용인, 기타 거주자-용인읍내 학교로 정류장에서 08:30분 출발
5. 유의 사항
 - 가) 기본 교육이에는 훈련소집증지서 생략-공고로 대신함.
 -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비상계획원칙으로 문의바람.

한국외국어대학교 용인캠퍼스 적정예비군 대대장

'92 대학장학생 모집

(학군·학사사관)

- 모집인원: 1학년(○○○○명)
- 지원자격: 14년제 대학 1학년('70.1.1~'76.1.1 출생자)
-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기 간: '92.9.1~10.10(학군단 본부)
 - 부처서
- 1차(지원서) 2차(신체검정)
 - 지원서(사전검정) 및 서약서 각 1부
 - 대학입학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신체(4×5) 3매
- 선발절차
 - 1차: 서류전형(인성 및 대학성적), 면접, 체력검정
 - 2차: 신체검정, 신원조회
- 합격자 발표: '93. 1. 20
- 특 점
 - 학군후보생 지원서 "가"점 부여, 선발시 우대 (학사사관 후보생으로 자동선발)
 - 대학졸업시까지 등록금 및 학습보조비 지급
 - 희망 및 전공 학과고려 병과분류 보적 활용
 - 전역시 직업보도 실시(대기업체 우대선발 및 처우)

육 군 본 부

3822

